

찬 송 68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예물바침>
(목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나
이다.
(회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참조, 대상29:11)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성령강림절 성만찬>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
희 우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창조5 / “하늘의 바람, 성령의 숨결”
/ 겔37:9-10; 엡2:2; 요3:8 >

✠ 교회 소식 ✠

㉑ 예배 : “영적 거장들의 기도의 힘”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온 성도님들의 기도는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영적 자산
입니다.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고 영혼들을 품어 안으시는,
교회의 든든한 영적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창조질서회복 설교시리즈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청지기”				
날짜	제목	구약	서신서	복음서
7월 5일	나무에게 배우는 예배	렘 17:7-8	계 22:1-2	막 8:22-26
7월 12일	흘러라, 생명의 강물아	암 5:24	계 22:17	요 4:13-14
7월 19일	흙, 생명을 품는 거룩한 터전	창 2:7	갈 6:7-8	막 4:3-8
7월 26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욥 4:10-11	롬 8:19-21	마 6:26
8월 2일	하늘의 바람, 성령의 숨결	겔 37:9-10	엡 2:2	요 3:8

㉒ 정기당회 : 26일(오늘) 오후 1시 30분, 회의실

㉓ 전체제직회 : 8월 2일(주) 2부 예배 후, 본당

㉔ 모임

- 한샘 여전도회 월례회 : 26일(오늘) 2부 예배 후, 기도실
- 2026년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 : 26일(오늘) 오후 1시, 2층 회의실
- 일대일양육자 기도회 : 31일(금) 오전 10시 30분, 남선교회실

㉕ 신앙 독서 나눔 "복음을 정확하게" :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가재

㉖ 긴급구호현금 :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많은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
습니다. 총회와 함께 긴급구호에 동참합니다.(‘구호현금’이라 기재)

㉗ 8월은 여전도회에서 식사를 판매합니다.

- 1, 2주 : 한샘 여전도회
- 3, 4주 : 한길 여전도회
- 5주 : 3050 공동체

㉘ 식당봉사

- 26일(주) : 최호정 고명수 / 이호진 정찬옥
- 8월은 봉사가 없습니다.

㉙ 교우소식

- 장례 :故김행식 성도(504구역 김정호 안수집사 부친, 윤혜원 권사 시부), 22일(수) 별세
- 출산 : 노진현·이해나 성도 득녀(14일)
- 감사 : 김영석 장로(405구역, 회수 감사) 점심식사 제공

㉚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수련회

부서	일정	장소	주제
영아유치부	7월 25~26일(토,주일)	안동어린이집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아동부	8월 1~2일(토,주일)	아동부실 & 교회마당	사랑으로 함께 세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7월 31일~8월2일(금~주일)	가평 이오스펜션	지파지기: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다
청년부	8월 7~9일(금~주일)	횡성 현대수리조트엔제너두	다시 새롭게!

1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성령강림절 후 아홉째주일

제772호

2026. 7. 26.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요나 4:11

성경은 동물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단순한 도구나 소모품이 아님을 분
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의 12만 명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긍
히 여기고 아끼셨으며(욥4:11), 예수님은 공중의 새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친
히 기르시는 귀한 생명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의 끝없는 식
욕과 탐욕이 만들어낸 무분별한 개발과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수많은 피조물
이 극심한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조물들이 이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해방시켜 줄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롬8:19). 거듭난 우리는 생명을 물건 취급하는 폭력에 동참하는 것을 멈추고
거룩한 절제를 실천하며, 모든 짐승과 피조물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역자로
존중하는 살롬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피조물의 탄식 듣기] 최근 언론이나 일상 속에서 동물들이 겪는 고통(로
드킬, 유기 동물, 공장식 축산, 기후위기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피조물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도한 육식 줄이기,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 사용하기 등 나의 식탁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명 존중의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성령강림절 후 아홉째주일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요6:68)

(목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능력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세의 복을 적절히 누리는 한편,
영원한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22장 다 갈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
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
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
히 고백합시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나이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으며, 인자
를 사랑하지도 못하였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였나
이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
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
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
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풍성한 영으로 우리를 불도소서.

(3) 용서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
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478장 다 갈 이

<구약의 말씀> 요나 4:10-11(1291) 정우영 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 말씀> 로마서 8:19-21(250) 정우영 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 씀 묵 상 > “내 주를 가까이 Medley”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6:26(9) 노찬희 권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설 교>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노찬희 권사